

변화와 소통

홈페이지: kttu.or.kr

트위터: twitter.com/kttu_kr

올해도 소비자 추월하는 LTE 속도전쟁

마케팅보다 기술개발·시설투자 늘려야 미래 담보



▲ 지난 1월 14일 강남 수서 및 일원지역 일대 기지국에서 실시한 속도테스트 현장

하 이 슈 - 2 0 1 4 년 이 동 통 신 전 망

올해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관심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LTE' 다. 그러나 지난해 많은 고객들의 LTE 전환이 활발했던 만큼, 이로 인한 실적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2011년말 LTE서비스가 본격화 된 이래 상승세가 지속돼 왔고, 무선데이터를 중심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졌다시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미 가입자가 5400만명에 달해 국민 1인당 1명 이상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올해는 전체 가입자 상승보다는 LTE 비중이 증가하며 매출 확대가 일 것으로 보인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올해 이동통신 시장의 가입자수가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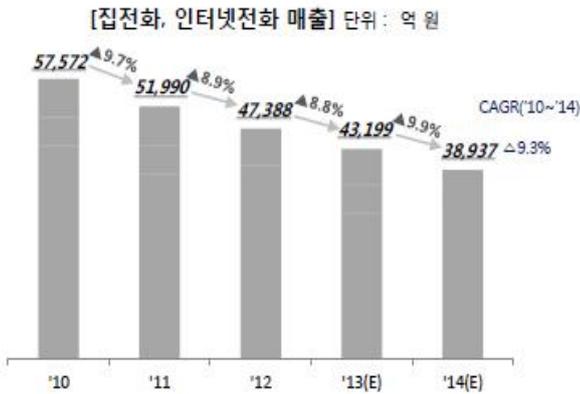
내다봤으며, 매출은 전년(23조 4000억원) 대비 5.6% 성장한 24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통 3사의 관심은 올해 좀 더 ‘속도 경쟁’에 치중하면서 ▲보조금 문제 ▲데이터 상품 집중 ▲상호접속료 ▲갤럭시 기어 같은 웨어러블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기본적으로 무선통신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IPTV, 솔루션, 콘텐츠, 금융 등 ▲탈통신 사업의 외형 확대에도 힘 쏟을 전망이다.

더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통과와 맞물려 요금제 3개월 의무유지 등이 없어지면서 이통사가 경쟁사로의 이탈을 막고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을 수 있는 상품개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KT경제경영연구소는 전체 유선전화 매출은 9.9% 감소하여 3.9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통신시장은 LTE시장 성숙기 도래와 콘텐츠시장의 효과로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1. 올해도 계속되는 LTE ‘속도 경쟁’

지난해 핵심 키워드가 LTE-A, 광대역 LTE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경매였다면, 올해는 7월 전국망 구축으로 이통 3사간 속도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 SKT, LGU+ 등 이통 3사는 광대역 LTE서비스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시작했다. 이통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3월 광역시, 7월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7월이면 두 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의식해서인지, 연초부터 통신

업계가 LTE 속도경쟁 홍보로 난리다.

먼저, KT는 광대역 LTE-A 국내 최초 상용망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이 기술은 광대역 LTE 주파수 망에 추가로 10MHz를 묶어 서비스하는 기술로 최대 225Mbps까지 속도가 난다.

KT는 “상용망 시범서비스는 최적의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갖춘 실내공간의 연구소 테스트와 달리, 실제 서비스중인 상용망에 신규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전 호환성과 망연동 시험 등 다양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하며, 무선국 허가 및 준공검사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상용화 의미를 밝혔다.

이어 SKT와 LGU+는 주파수 3개 대역을 묶어 서비스하는 ‘3밴드 CA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홍보하며, 4배 빠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아직 기술개발, 시범서비스 단계인 것에 주목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 기지국 구축, 단말기 개발 등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LTE 이용자 입장에서는 광대역 LTE-A나 4배 빠른 LTE가 사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도 큰 흠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속도를 비교해 가늠할 환경이 안될뿐더러, 기존 LTE 속도로도 상당부분 만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등장한 LTE-A는 기존 LTE 서비스보다 빠른 속도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LTE-A 서비스의 이론상 최고속도는 150Mbps로 LTE(75Mbps)의 2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부가 공개한 품질평가 결과에서 LTE-A서비스 품질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LTE-A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7.2Mbps로 이론상 속도의 1/3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일반 LTE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 KT의 주파수 확보로 등장한 광대역 LTE서비스는 우수성이 입증되며 속도경쟁의 우위를 점했다.

평균 내려받기 속도가 56.6Mbps로 LTE-A 서비스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광대역 LTE란 기존 LTE 서비스에 제공됐던 주파수 20MHz 폭보다 2배 정도 넓은 주파수(40MHz)로 서비스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주파수묶음기술 (CA)을 활용해 LTE 대역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LTE-A와 같이 이론속도가 기존 LTE의 2배다.

KT 광대역 LTE는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존 LTE 휴대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5개 광역시에서도 쓰던 폰 그대로 광대역 LTE를 이용할 수 있다.



2. 불법보조금과 단통법도 변수

거듭되는 불법보조금 논란도 올해 통신 시장의 난제 중 하나다.

지난해 1월부터 과다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한 영업정지로 새해를 맞은 이통 3사는 올해도 과징금으로 새해를 맞았다. 과징금 규모도 사상 최대인 1064억원에 달했다.

불법보조금이란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값비싼 스마트폰을 공짜로 판매하는 등 시장질서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됐다.

특히 갤럭시S3 17만원 사태 등은 보조금제도 개선요구를 촉발시켰고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와 정치권이 나서 만든 제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다.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과도한 이용자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전문가와 함께 '단말기유통구조개선TF'를 통해 내놓은 제도로 이르면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올해 보조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냐에 따라 통신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어떤 지점에서든 동일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이다. 또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 행위도 금지돼 취지대로라면 요금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에서 줄인 비용을 멤버십 서비스나 요금 할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기존 소비자들의 긍정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시장위축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통위가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정부와 통신 업계의 불법 보조금 추격전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광대역 LTE 서비스 본격화, 단통법 시행 등의 변수에 따라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도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음성→데이터 중심 '상호접속료' 전쟁 예고

연말에는 지난해 주파수경매에 버금가는 연간 2조 5000억원 수준의 상호접속료 협상도 이뤄질 방침이다.

따라서 이통3사는 접속료 1원에 따라 수천억원의 수익이 좌우되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와 같이 치열한 전략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음성 위주의 현행 체계가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속료는 통신 가입자들이 서로에게 전화를 걸 때 발생하는 통신사간 정산료다. 정부는 통신 설비 원가와 변화하는 시장환경,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차등 접속료를 명시한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2년 주기로 개정해 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통사가 음성무제한요금제와 데이터 기반 VoLTE 통화를 도입하면서 접속료 체계도 음성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4. 데이터 활용상품 출시 봇물 예상

지난해 KT는 데이터 2배 프로모션을 통해 기본 제공량을 2배 늘려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1월말 국내 최초로 3배 빠른 광대역 LTE-A 상용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빨라지는 속도에 맞게 데이터를 3배 더 많이 제공하는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대역 안심무한 67.77 등 2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기본제공 데이터를 기존 6만원대 요금제 대비 3배인 15GB까지 제공한다. 또 SKT는 하루 2GB씩 월 최대 62GB까지 쓸 수 있는 'T모바일라이프팩'을 내놨고, LGU+도 이와 비슷한 '100% LTE 데이터팩'을 선보였다.

올해 이통 3사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특화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알뜰폰 성장 예상, 웨어러블 제품도 주목

국내 이통시장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알뜰폰(MVNO)의 성장세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248만명으로 2012년 말(126만명)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우체국이 알뜰폰 수탁판매를 시작하고 이마트가 알뜰폰 사업을 개시한 지난 4분기에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5%, 50대 22.5%, 60대 20.7%로 중장년층이 주요 고객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알뜰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 2014년, 3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은 2014년 가입자 규모가 더욱 급증해 전체 이통시장 점유율 10%까지 육박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시계 '갤럭시 기어'를 출시하며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입는 컴퓨터) 시대를 열었다. 올해에도 세계 유명 업체들이 다양한 웨어러블 컴퓨터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련 제품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아직까지 디스플레이의 한계, 배터리 지속시간 등 다양한 해결과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라 그야말로 IT 업계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6. 기술·시설투자 없이는 미래전망 불투명

증권가는 올해 이통 3사 실적 전망을 대체로 장밋빛으로 예상했다.

경쟁사들의 실적개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KT도 부진을 딛고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인접대역을 획득한 KT는 가입자회복유무에 따라 그 동안의 부진을 한번에 만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올해 이통사들의 수익성에 미칠 변수는 마케팅비용과 시설투자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의 속도경쟁으로 인해 지난해와 같은 마케팅 출혈경쟁이 재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마케팅 과열에 대해 정부가 강한 규제의지를 세우고 있어,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통 3사의 마케팅비는 8조원에 이르렀다. 업체별로는 SKT, KT, LGU+ 3사가 2013년 마케팅비로 각각 3조 4280억원, 2조 6810억원, 1조 836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3사의 마케팅비용을 합하면 무려 7조 9452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통3사는 네트워크 망구축을 위한 올해 투자비용으로 KT 3조 5000억원, SKT 2조 1000억원, LGU+ 2조원 등 총 7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투자를 웃도는 마케팅 지출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 '나도 한마디'를 보면, 과도한 마케팅난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이를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집중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빗발치기도 하다.

불필요한 지역단별 프로모션 근절과 GB의 자발적 운영을 위해 앞장서온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는 2014년, 지나친 영업 압박보다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